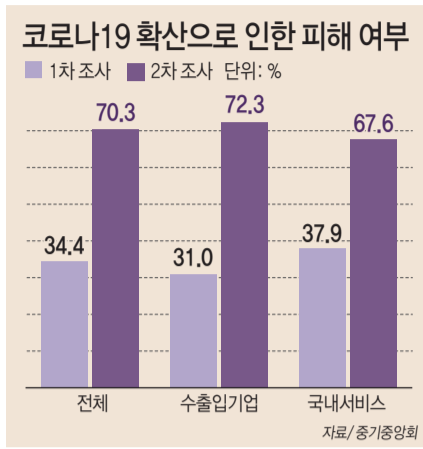


“노란우산 함께~”... 소상공인 향한 김기문의 착한상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 “중소 10곳 중 7곳 ‘코로나19’에 경영 타격 받지만 더욱 힘든분들 도와야 할 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4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약자가 더 약자를 도와주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외치던 중소기업계가 이번엔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하겠다고 본격 나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들이 적극 나서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인이 나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 중에선 3곳 중 2곳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등 중소·벤처업계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대기업과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과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면서 “이 자리에서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을 만나보면 매출이 줄고 돈이 필요

한데 오히려 은행에선 차입금 상환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특히 받은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은 추가 대출도 어려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이전 중소기업이 적극 나서 더욱 힘든분들을 도와야 할때”라고 덧붙였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중소기업전시판매장 입점 업체들의 임대료 할인폭을 기존 20%에서 50%까지 늘려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판매장에는 현재 40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와 중기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 지역 중소기업회장, 회원조합 이사장 등 657개 조합·단체장 가운데 건물 임대료를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 약 160만명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자만 17만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계 만형인 중기중앙회가 이같은 운동을 시작해도 유인책이

많지 않아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임대인은 임대인보다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안다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호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IMF나 금융위기때 등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번에도)반응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25~26일 사이 수출기업, 중국수입기업, 소상공인등 국내 서비스업 등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3%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차 조사(2월4~5일)때 ‘경영상타격(34.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보다 앞서 벤처협회가 회원사 628곳(응답 61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결과에선 223곳(36.4%)이 직접 피해를, 160곳(26.1%)은 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I 네트워킹 잇단 취소... AI협회 ‘한숨’

코로나19에 주요 사업계획 차질 이메일·서면 대체 등 무기한 연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공지능(AI) 협회 및 기업들이 올해 주력하고 있는 네트워킹 행사가 잇따라 취소돼 고심하고 있다.

AI 협회 및 기업들은 올해 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매칭이나 고객 발굴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만남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수립했다. 또 이를 위해 기업 관계자들이 만나는 네트워킹 행사 자리 마련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사를 이메일 회의로 대체하거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미뤘으며, 추후 상황을 봐서 행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AI대표 협회인 지능정보산업협회는 대기업·금융권 등 수요 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AI 기술 기업들을 모두 보유한 만큼 매달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조찬포럼과 네트워킹 만찬을 개최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12일에는 조찬포럼을 정상 개최했지만, 20일 개최 예정이던 2월 네트워크 만찬은 취소했다.

네트워크 만찬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AI 기업에게는 자사의 기술을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또 3월에는 오는 11일 총회를 겸해 조찬포럼을 진행하고 만찬 행사도 개최하려고 했지만 우려가 커짐에 따라 두 행사 모두 취소했다. 대신 총회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총회는 서면 결의서에 지난해 결산, 올해 경영계획 승인, 이사회 승인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가·부를 선택해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협회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자리 마련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변의 만류와 우려로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과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플랫폼 전문업체인 에이모(AIMMO)는 당초 지난 13일 강남타워에서 ‘2020 AI·빅데이터 로드맵’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행사를 취소했다. NBP와 에이모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 데이터 가공 비즈니스 사례 및 활용방법, 컨설팅 등을 지원해 AI 데이터를 가공하는 수요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장 ‘3연임’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사진)이 제15대 한국신발산업협회장에 재추대됐다. 문창섭 회장은 3연임을 하게 됐다. 한국신발산업협회는 2020년 정기이사회 겸 총회를 열고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문 회장을 재추대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업계를 위한 열정과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문 회장은 “어려운 시기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원부자재, 부품, 소재 등 뿌리산업부터 완제품산업에 이르기까지 신발산업 전반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탄탄한 미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계적인 육성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터라 이를 적극 보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부산상공회의소상임의원, 개성공단비상대책공동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운영위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전방위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북미 추가공략 950억 투입

2024년 2.5만평 생산공장 건립

경동나비엔이 북미시장 추가 공략을 위해 물류창고와 공장 건립을 위해 총 920억원을 투자한다.

경동나비엔은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시티 카운티에 물류창고를 우선 짓고 오는 2024년까지 2만5000평 규모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동나비엔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콘텐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온수기 등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영

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제 경동나비엔은 북미에서 콘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효율 시장을 만들어냈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 온수기 ‘NPN’을 출시했고,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통해 상업용 시장을 확대하는 등 현지에서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투자로 인해 회사측은 단기적으로 물류비 감소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 물류창고와 공장이 보일러, 온수기 수요가 많은 동부지역 시



경동나비엔 미국법인 나비엔 아메리카 전경.

장과 인접해 있고, 버지니아항구와도 가까워 자재수급과 물류 배송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지니아주에선 한만 경제 및 인프라 개발구 교부금 프로그램 지원받는 등 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대구·경북 택배 무상지원

3월 한달간 이용료 전액면제

CJ대한통운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인택배 서비스를 3월 한달간 무상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으로 배송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발송하는 모든 개인택배 접수건에 대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주민이 CJ대한통운을 통해 접수했거나 외부에서 해당 지역으로 발송한 개인택배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3월에는 이용수요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이용자들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보내는 주소(발송지) 또는 받는 주소(도착지)가 대구·경북지역인 예약건은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끝나면 해당 지역 택배기사들은 고객과 약속된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집화할 예정이다. 접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으로 유입되는 각종 생필품, 구호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택배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